

#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의 조성기 「施主秩」 분석

유근자(劉根子)

## I. 머리말

## II.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施主秩」의 구성과 내용

1. 「施主秩」의 구성
2. 「施主秩」의 내용

## III.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施主秩」의 분석

1. 施主 物目과 시주자
2. 所任者와 시주자
3. 大功德主 벽암 각성
4. 왕실 시주자

## IV.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의 제작 시기

## V. 맺음말

---

동국대학교 미술학부 불교미술전공 강의초빙교수

주요 논저:

「오대산 상원사 영산전 존상의 복장 기록 연구」, 『국학연구』 45(2021); 「오대산 상원사 문수전 목조제석천상의 연구」, 『선문화연구』 30(2021); 「서울 옥수동 미타사 아미타삼존불좌상의 복장 유물 분석과 양식 특징」, 『불교문예연구』 17(2021); 「광양 백운산의 17세기 불상 복장기록 연구」, 『남도문화연구』 43(2021); 「흥천사 조선 후기(1829년) 석조약사불상의 연구」, 『보조사상』 58(2020); 「양주 靑蓮寺의 豫修齋와 조선 후기 명부전 도상」, 『동국사학』 66(2019); 「17세기의 원주 송광사 불사와 벽암 각성(碧巖覺性)」, 『남도문화연구』 36(2019); 「조선시대 불상의 복장기록 연구」 (2017).

본 논문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가운데 左尊 노사나불상과 右尊 석가불상의 복장에서 수습한 2점의 불상 조성기인 「施主秩」을 분석한 것으로, 두 자료는 2015년 9월과 2020년 7월의 복장 조사를 통해 나온 것이다. 2015년 9월에 수습한 석가불상의 「施主秩」은 한동안 미공개로 화엄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되다가 2020년 7월 노사나불상의 「施主秩」이 발견되면서, 2021년 9월 ‘지리산 대화엄사’ 특별전을 통해 함께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화엄사 두 불상의 「施主秩」은 17세기에 조성된 불상에 관한 기존 조성기의 일반적인 낱장 또는 두루마리 형식과 다르게, 線裝 방식으로 假綴된 책자 형식으로 되어 있다. 노사나불상의 「施主秩」은 1책 19장 38면으로, 석가불상의 「施主秩」은 1책 11장 22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施主秩」의 내용은 불상 조성의 목적, 제작 시기, 奉安 연도 및 奉安處, 尊名, 所任者, 彫刻僧, 施主 物目, 施主者 등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당시 화엄사에 주석하고 있던 승려들까지 수록하고 있는 점에서 「施主秩」은 약 400여 년 전 화엄사의 중창 불사 당시의 상황을 오늘날에 소상하게 알려주는 타임캡슐(time capsule) 같은 것이다.

노사나불상과 석가불상의 「施主秩」 및 노사나불상의 대좌 기록에 의하면, 1634년(인조 12) 3월에 화엄사 비로자나삼신불상을 조성하기 시작해 8월에 완성한 후, 1635년(인조 13) 가을에 대웅전에 봉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화엄사 비로자나삼신불상의 제작 시기를 1634년으로 특정할 수 있게 된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은 中觀 海眼이 1636년(인조 14)에 저술한 『湖南道求禮縣智異山大華嚴寺事蹟』에 의존해 비로자나삼신불상의 조성 시기를 1636년으로 추정해 왔는데, 이제는 화엄사 비로자나삼신불상의 제작 시기를 1634년으로 특정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화엄사 노사나불상과 석가불상의 「施主秩」은 碧巖 覺性の 역할을 잘 알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벽암 각성은 1630년에 화엄사 동오층석탑을 중수할 때는 ‘大功德主’였고, 1634년 삼신불상을 조성할 때도 ‘辦舉事’ 또는 ‘大功德主’였으며, 1653년 영산회 괘불탱을 조성할 때 역시 주도적인 역할을 맡는 등 17세기 화엄사 중창 불사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화엄사 노사나불상과 석가불상의 「施主秩」은 벽암 각성과 왕실과의 관계를 밝힐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노사나불상과 석가불상의 「施主秩」은 불상의 조성과 관련하여 왕실 인물인 선조의 아들 義昌君 李珣과 사위 申翊聖, 인조의 아들 昭顯世子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최초의 자료이기 때문이다.

화엄사 노사나불상과 석가불상의 「施主秩」은 비로자나삼신불상의 조성 연도, 벽암 각성과 왕실의 관계 및 벽암 각성의 역할 등, 17세기 비로자나삼신불상의 조성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담고 있어 미술사뿐만 아니라 향후 화엄사의 역사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적 가치가 있다.

주제어 :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노사나불상, 시주질, 벽암 각성, 의창군, 신익성, 소현세자

#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의 조성기 「施主秩」 분석

유근자(劉根子)

동국대학교 미술학부 불교미술전공 강의초빙교수

## I. 머리말

화엄사 대웅전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은 1634년(崇禎 7, 인조 12)에 수조각승 淸憲(淸軒)이 보조각승 18명과 함께 조성한 불상으로 法身 비로자나불, 報身 노사나불, 化身 석가불상으로 구성되어 있다(도 1). 화엄사 삼신불상은 동아시아 삼신불상 가운데 비로불 · 노사나불 · 석가불로 조합된, 존상명 · 제작 연도 · 봉안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불상으로, 17세기 불교조각사 연구에 기념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sup>2</sup> 또한 한국의 노사나불상 가운데 유일한 보관형인 점도 중시되어 2021년 6월 국보로 승격되었다.

화엄사 삼신불상이 국보로 승격된 데에는 불상에 대한 조성 기록이 복장과 팔각 대좌 내부에서 발견된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 불상 조성 기록인 「施主秩」<sup>3</sup>은 삼신불상 가운데 노사나불상과 석가불상에서 발견되었고, 두 불상의 팔각 대좌 내부 板材에도 불상 조성 기록이 남아 있다.<sup>4</sup> 「施主秩」과 대

\* 이 글은 2021년 9월 불교중앙박물관 특별전 「華藏 지리산 대화엄사」 도록에 실린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유근자, 「화엄사 대웅전 비로자나삼신불좌상의 시주질 분석」, 『지리산 대화엄사』(2021), pp.339-365 참조.

1 본 논문에서는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을 간략히 화엄사 삼신불상으로 표기하였다.

2 최근 동아시아 삼불상에 관한 논문이 발표되어 화엄사 삼신불상이 갖는 미술사적 의미가 부각되었다. 심주완, 「동아시아 삼불상 도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p.278.

3 화엄사 삼신불상의 조성에 관한 기록은 「施主秩」로 문서의 1면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施主秩」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秩」은 조선시대 불상조성기에서 주로 참여자를 열거할 때 사용하였는데 화엄사 삼신불상의 경우 「施主秩」에는 불사에 참여한 인물들이 大德秩, 本寺施主秩, 緣化秩, 畫員秩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혼동될 우려가 있어 화엄사 삼신불상의 조성기인 「施主秩」은 인용부호를 사용해 「施主秩」로 표기하였다.

4 노사나불상 팔각대좌 안쪽면의 묵서된 기록은 (사)사찰문화재보존연구소가 2014년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어 2015



도 1. 화엄사 대웅전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1634년, 석가불상(좌) 245cm, 비로자나불상(본존) 280cm, 노사나불상(우) 264.5cm, 필자 촬영

좌의 묵서 기록은 2014~2015년과 2020년에 실시된 두 차례의 정밀 조사로 발견되었다.

2020년 7월 10일 복장 조사의 주목적은 화엄사 삼신불상 가운데 노사나불상의 복장물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당시 화엄사·문화재청·(사)사찰문화재보존연구소 관계자와 송일기·최성은·이수예·필자가 공동으로 복장물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노사나불상의 복장에서 다량의 복장 전적과 「施主秩」이 수습되었다.<sup>5</sup> 석가불상의 「施主秩」과 복장 전적은 (사)사찰문화재보존연구소에서 2014년 11월에 실시한 불상의 기록화 사업 과정 중 2015년 9월에 화엄사 성보박물관에서 수습해 공개하지 않은 채 보관해 왔다.<sup>6</sup> 2020년 7월 10일에 실시한 노사나불상의 복장 조사는 2014년 기록화 과정에서 X-ray 촬영으로 노사나불상의 복장 유물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도 2). 두 번의 조사로 수습된 복장 유물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리하는 작업은 (사)사찰문화재보존연구소와 함께 송일기, 이수예, 필자 등이 2020년 7월 11일에 화엄사 성보박물관에서 진행했다.<sup>7</sup>

년에 학계에 소개되었다. 최인선, 「珍島 雙溪寺 大雄殿 三尊佛像과 彫刻僧 熙藏」, 『문화사학』 44(2015), pp.220~221.

5 노사나불상과 석가불상의 복장에서 수습된 복장 유물은 불교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한 특별전 도록에 수록되었다. 불교중앙박물관, 『지리산 대화엄사』(2021), pp.164~187.

6 노사나불상의 대좌 기록과 석가불상 「施主秩」 내용의 일부가 보고서에 간략하게 소개된 바 있다. 문화재청·구례군,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상 보고서」, (사)사찰문화재보존연구소(2015), pp.202~205.

7 필자는 2020년 7월 10~11일에 실시된 화엄사 대웅전 노사나불상의 복장 조사에 참여한 후 수습된 「施主秩」을 정리 및 분석하여 2020년 8월에 중간보고서를 화엄사에 제출하였다. 이후 화엄사 삼신불상은 2021년 6월 23일에 국보로 승격되었고, 2021년 9월에는 불교중앙박물관의 「華藏, 지리산 대화엄사」 특별전에 2020년 7월에 조사 및 정리된 석가불상·노사나불상의 복장 유물이 최초로 공개되었다. 그런데 2021년 6월 국보 지정과 9월 특별전 이전인 2021년 2월에 복장 조사로 수습한 미공개 자료인 「施主秩」과 대좌 묵서 자료를 이용하여 화엄사와 관련된 4편의 학위논문이 발표되었다. 따



화엄사 두 불상의 「施主秩」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1634년(인조 12, 崇禎 7)에 불상을 조성한 기록과 의창군 이광(1589-1645)을 비롯한 왕실 인물들이 시주자로 참여한 기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지금까지 발견된 조선 후기 불상 조성기 가운데 의창군 이광, 신익성(1588-1644), 소현세자(1612-1645) 등과 같은 왕실 인물이 직접 기록된 최초의 자료라는 점이다. 또한 화엄사 삼신불상의 조성을 주도한 碧巖 覺性(1575-1660)과 이들의 긴밀한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라는 측면에서도 이 두 「施主秩」은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

그동안 화엄사 삼신불상의 제작 시기는 『湖南道求禮縣智異山大華嚴寺事蹟』(1636년, 이하 『華嚴寺事蹟』으로 약칭)<sup>8</sup>의 기록에 의거해 1636년으로 추정하였다.<sup>9</sup> 이 기록에 의하면 懶默과 希寶가 화주가 되어 淸惠·英頤<sup>10</sup>·印均·應元



도 2. 화엄사 노사나불상 X-ray 촬영, ©사찰문화재보존연구소

라서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필자는 2020년 7월 복장 조사에 참여한 후 2020년 8월에 이미 석가불상·노사나불상 「施主秩」을 釋文하고 분석하여 화엄사에 보고하였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2021년 2월에 발표된 학위논문은 인용할 수 없음을 밝혀둔다.

- 8 中觀 海眼이 1636년에 저술한 『湖南道求禮縣智異山大華嚴寺事蹟』은 필사본이며 이것을 柏庵 性聰이 1697년에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
- 9 손영문, 「조각승 印均派 불상조각의 연구」, 『강좌미술사』 26(2006), pp.62-64; 오진희, 「화엄사 대웅전 목 삼신불상의 연구」, 『강좌미술사』 28(2007), pp.25-46; \_\_\_\_, 「17세기 전반 曹溪山 松廣寺와 彫刻僧: 覺敏, 應元, 印均」, 『보조사상』 29(2008), p.20; 송은석, 「조선 후기 應元·印均派의 활동: 應元, 印均, 三忍」, 『한국문화』 52(2010), pp.219-249; \_\_\_\_, 「조선 후기 불교조각사」(서울: 사회평론, 2012), pp.139-140.
- 10 17세기 조각승 英頤(영이)는 英蹟(영색)으로도 표기되었다. 화엄사 노사나불상 「施主秩」에는 英蹟(영색)으로, 석가불상 「施主秩」과 『湖南道求禮縣智異山大華嚴寺事蹟』에는 英頤(영이)로 기록되었다. 파주 보광사 목조보살입상의 두 장의 발원문에도 영색과 영이가 다르게 표기되어 최선일은 영이는 영색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최선일, 「파주 보광사 대웅보전 목조보살입상과 彫刻僧 英蹟」, 『미술사학』 24(2010), pp.73-75. 그러나 화엄사 석가불상·노사나불상과 파주 보광사 보살입상의 조성기에는 英頤(영이)와 英蹟(영색)이 혼용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동일 조각승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선시대 불상 연구자들도 조각승 영이와 영색을 동일 인물로 인식하고 있다. 송은석, 「조선후기 應元·印均派의 활동: 應元, 印均, 三忍」, 『한국문화』 52(2010), p.223; \_\_\_\_, 「미국 미술관, 박물관 소장 조선시대 불상 연구」, 『미술사와 시각문화』 12(2013), p.312; 손영문, 「朝鮮 後期 木造阿彌陀如來三尊 佛龕과 阿彌陀如來七尊 佛龕 考察」, 『불교미술』 30(2019), pp.19-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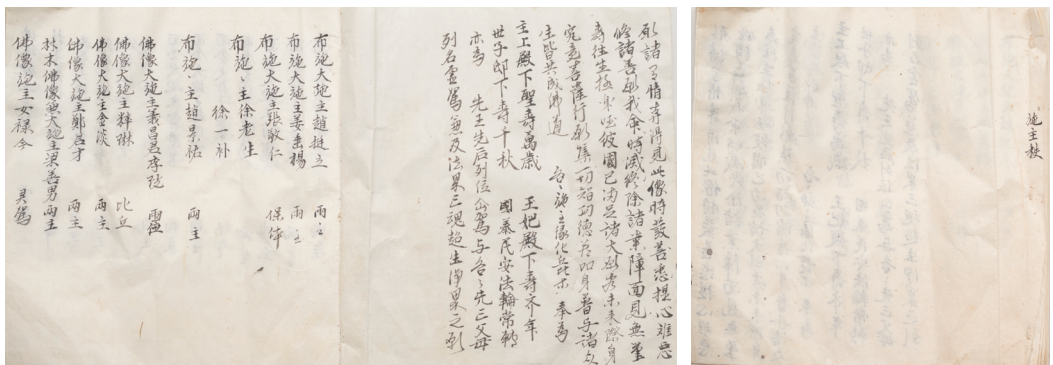
등 조각승을 초청해 삼신불상을 조성했다"고 한다. 그런데 석가불상과 노사나불상에서 「施主秩」이 발견되면서 화엄사 삼신불상의 조성 연대는 1634년으로 특정할 수 있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2015년 9월과 2020년 7월에 수습된 두 불상 「施主秩」의 형식을 살펴본 후 그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施主秩」의 내용 가운데 분석 대상은 施主 物目과 施主者, 불상 조성의 실무를 맡은 所任者, 불사를 주관한 벽암 각성, 왕실 인물의 시주자 등이다. 마지막으로 두 불상의 「施主秩」과 노사나불상의 팔각대좌 내부에 기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삼신불상의 제작 시기를 검토하고자 한다. 「施主秩」과 대좌의 묵서 기록은 제작 시기 및 봉안 연도가 다르게 표기되어 있고, 2021년 6월 국보로 지정될 당시 삼신불상의 조성 연도를 1635년(인조 13)으로 공시했기 때문에<sup>12</sup>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두 불상의 「施主秩」과 노사나불상 팔각 대좌 내부의 묵서 기록을 분석해 불상의 제작 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II.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의 「施主秩」 구성과 내용

### 1. 「施主秩」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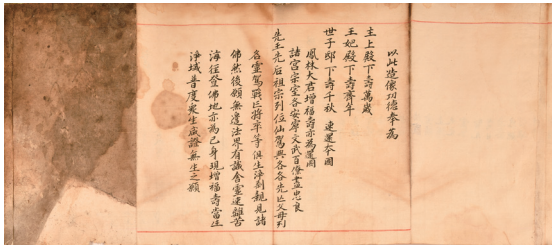
화엄사 삼신불상의 구성에 관한 기록인 「施主秩」은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날장과 두루마리 형식과 다른 線裝 방식으로 가철된 책자 형태로 되어 있다(도 3). 17세기에 조성된 불상 가운데 완주 송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상의 조성기(1641년)(도 4)는 절첩 형식이고, 김제 금산사 석가삼존상(1650년, 현 군산 동국사 소장)(도 5)의 조성기는 두루마리 형식이어서 17세기에는 다양한 형태의 불상 조성기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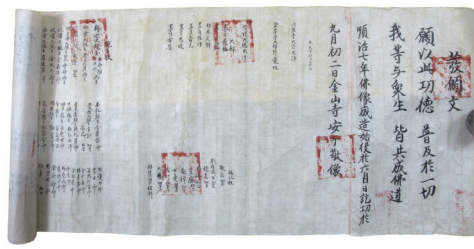
도 3. 화엄사 노사나불상의 시주질, 1635년, 한지에 묵서, ©사찰문화재보존연구소

11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華嚴寺誌』(서울: 아세아문화사, 1997), p.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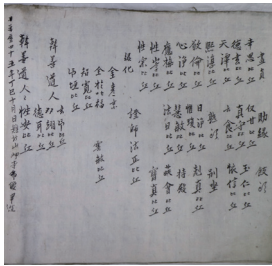
12 문화재청 문화유산 검색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https://www.heritage.go.kr/heri/cul/>



도 4. 원주 송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조성기, 1641년, ©사찰문화재보존연구소



도 5. 김제 금산사 소조석가삼존불상(현 동국사 소장) 조성기, 1650년, ©손영문



도 6. 공주 갑사 관음보살상 조성기, 1617년, 한지에 묵서, ©손영문



도 7. 천은사 수도암 아미타불상 조성기, 1646년, 한지에 묵서, ©불교중앙박물관

화엄사 두 불상의 「施主秩」처럼 조성기가 가철된 예로는 공주 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과 사보살입상(1617년)의 조성기(도 6)<sup>13</sup>와 구례 천은사 수도암 아미타삼존상의 조성기(1646년)(도 7)를 들 수 있다. 갑사와 화엄사 불상의 조성기 형식이 유사한 것은 두 사찰은 화엄 10찰에 속하는 사찰이고, 왜란 때 僧將이 주석하였으며, 17세기에 중창된 사찰이라는 공통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도를 대표하던 僧將 靈圭(?-1592)는 갑사를 중심으로,<sup>14</sup> 호남을 대표하는 僧將 벽암 각성은 화엄사를 중심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의승군의 활동과 불상 조성의 깊게 관련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화엄사 석가불상 「施主秩」은 1책 11장 22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노사나불상 「施主秩」은 1책 19장 38면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1). 1면 표지에는 「施主秩」이라는 문서 명칭이 기록되어 있다.

표 1. 화엄사 석가불상과 노사나불상 「施主秩」의 구성

	施主秩 명칭	發願文	施主物目과 시주자	施主者	大德秩	本寺施主秩	緣化秩 등	빈면
석가불상	1면	없음	3-5면	6-20면	없음	없음	21면	2, 22면
노사나불상	1면	2면	3-9면	10-21, 30-34면	22-25면	27-30면	37면	35-36, 38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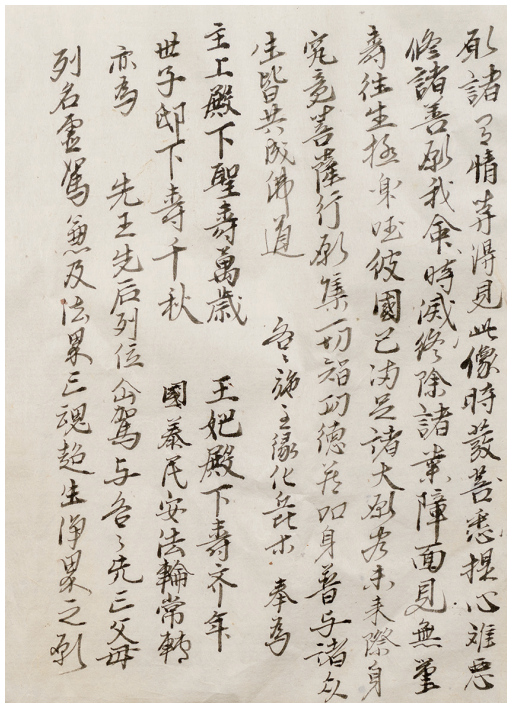
13 김광희, 「갑사 대웅전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사보살입상 연구」, 『미술사학연구』 300(2018), pp.171-174.

14 김승호, 「王亂時 僧將의 설화전승 양상 - 靈圭大師를 중심으로 -」, 『동악어문학』 36(2000), pp.351-370; 김성순, 「갑사(甲寺) 사적(史蹟)을 통해 본 의병장 영규(靈圭)에 대한 두 갈래 시선」, 『불교문예연구』 14(2019), pp.271-296.

## 2. 「施主秩」의 내용

노사나불상의 「施主秩」을 중심으로 2면의 발원 내용과 37면의 緣化秩 및 畫員秩을 살펴보고, 시주와 관련된 내용은 Ⅲ장 「施主秩」의 분석에서 다루고자 한다. 노사나불상 「施主秩」 2면에 실린 發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도 8).

願諸有情等 得見此像時 發悉苦<sup>15</sup> 提心 離惡修諸善 願我命終修時 滅除諸業障 面見無量壽 往生極樂<sup>16</sup> 彼國已滿 是諸大願 為未來際 身究竟菩薩行 願集一切智功德莊嚴身 普與諸眾生 皆共成佛道 各施緣化比丘等 奉為 主上殿下聖壽萬歲 王妃殿下壽齊年 世子邸下壽千秋 國泰民安法輪常轉 亦為 先王先后列位 仝駕 與各先亡父母 列名靈駕 兼及法界亡魂 超生淨界之願。<sup>16</sup>



도 8. 화엄사 노사나불상 「施主秩」, 2면 발원 내용, 1635년. ©사찰문화재보존연구소

원컨대 모든 유정들이 이 불상을 보게 되면 보리심을 일으켜서 악행을 버리고 모든 선을 닦기를 바라옵니다. 원컨대 목숨을 마칠 때 우리가 수행하면 모든 업장이 소멸되어 무량수불을 직접 뵈고 극락에 왕생하여 저 극락세계가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큰 서원을 세워 미래가 다하도록 이 몸은 구경의 보살행을 하오리니, 원컨대 일체의 지혜공덕장엄신을 모아서 널리 모든 중생들과 함께 불도 이루기를 바랍니다.

각각 시주하고 연화한 비구들이 받들어 기원하오니, 주상전하 성수는 만세하시고 왕비전하 수명은 임금과 같아지시며, 세자저하의 수명은 천추하시고 나라와 백성은 편안하여 법륜이 항상 굴러가기를 바라옵니다. 또한 돌아가신 임금·왕비의 영가와 각각 나열된 부모 영가와 법계의 혼령들이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랍니다.<sup>17</sup>

15 원문은 菩悉이지만 환치부호를 사용하여 수정하였다(고경스님 교정 및 교열).

16 校勘 및 校閱 고경스님(송광사 성보박물관장). 노사나불상 「施主秩」에 실린 발원 내용은 해석을 위해 재편집해서 입력하였다.

17 번역 이종수(순천대학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노사나불상 『施主秩』의 발원 내용은 모든 중생들이 화엄사 대웅전의 삼신 불상을 친견하고 보리심을 내어 善行을 닦을 것을 권하고 있다. 권선과 보살행을 강조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내용은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있다. 화엄사 삼신불상의 조성을 주도한 벽암 각성은 義僧軍<sup>18</sup>으로도 활동하였기 때문에, 노사나불상 『施主秩』에서 극락왕생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왜란으로 목숨을 잃은 이들을 위한 천도와 벽암 각성의 당시 신앙관과도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sup>19</sup>

화엄사는 1597년 정유재란 때 왜군을 방어하기 위해 고려 말에 설치되었다가 임진왜란 이후 다시 축조된 石柱鎭<sup>20</sup> 전투에서 전사한 7명의 의병장과 관련이 깊다. 당시 석주진 전투에 참여한 의병은 1597년 석주진의 수비를 튼튼히 하기 위해 화엄사에 격문을 보내 승병 153명과 군량미 103석의 지원을 요청하였다.<sup>21</sup> 당시의 상황은 정조 23년(1799년) 12월 10일에 전라 감사 趙宗鉉(1731-1800)이 올린 구례현의 7명 의사가 순절한 실적을 탐문하여 보고한 『일성록』에도 자세히 전한다.<sup>22</sup> 이 기록은 정유재란 당시 화엄사 승려 153명이 석주관 전투에 군량미를 운반하고 의사 6인과 함께 전사한 사실에 관한 것이다. 이처럼 구례 지역의 의병과 화엄사의 승려들이 석주관 전투에서 함께 활동하였기 때문에 화엄사 석가불상과 노사나불상의 『施主秩』에 등장하는 속인시주자들은 구례 지역에 거주하는 인물들이 상당수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23</sup>

두 불상 『施主秩』의 21면과 37면에는 지리산 화엄사 법당의 상주불로 비로불 · 노사나불 · 석가불을 모신다는 내용과 함께 1634년 3월에 불사를 시작해 다음 해 가을에 마치고 불상을 대웅전에 봉안한다고 기록되어 있다(도 9). 노사나불상 『施主秩』 37면에는 이 외에도 불상 조성에 소임을 맡은 승려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8 조선시대 의승군에 대해서는 양은용·김덕수 편, 『壬辰倭亂과 佛教義僧軍』(서울: 경서원, 1992) 참조.

19 왜란 이후 벽암 각성의 정토에 관한 인식은 박만정(1648-1717)이 지은 『東溪集』 卷 3 『智異山白蓮臺記』에 잘 함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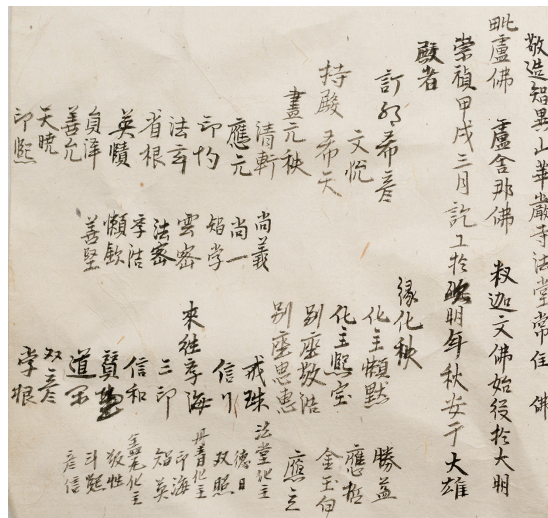
20 石柱城 또는 石柱關이라고도 한다.

21 구례군지편찬위원회, 『구례군지』(구례: 구례군, 2005), pp.449-451; 양은용, 「丁酉再亂의 석주관전투와 華嚴寺義僧軍」, 『가산학보』 4(1995), p.171; 양은용, 「임진왜란 이후 佛教義僧軍의 동향—全州松廣寺의 開創碑 및 新出 腹藏記를 중심으로」,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4(2003), p.126; 김영봉, 「求禮 石柱關七義士에 대한 追慕詩文 考察」, 『한국시가문화연구』 27(2011), pp.143-147; 노기욱, 「이순신의 수군 정비와 명량해전」, 『지방사와 지방문화』 16(2013), pp.78-79. 양은용, 「뇌묵 처영(雷默處英)의 의승 활동과 금산사(金山寺)」, 『한국종교』 47(2020), p.134.

22 『日省錄』 정조 23년(1799) 12월 10일.

23 이에 대해서는 본 논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해 차후 과제로 남겨둔다.





도 9. 화엄사 노사나불상 「施主秩」 37면, 1635년

敬造智異山華嚴寺法堂常住 佛

毗盧佛 盧舍那佛 釋迦文佛始役於大明

崇禎甲戌三月訖工於次明年秋安于大雄

殿者

證明 希彦	緣化秩	
文悅	化主 懶默	勝益
持殿 希天	化主 熙宝	應哲
畫元秩	別座 敬浩	金玉伊
清軒 尙義	別座 思惠	應立
應元 尙一	戒珠	法堂化主
印均 智学	信行	德日
法玄 雲密	來往 李海	双照
省根 法密	三印	丹青化主
英頤 李浩	信和	印海
負澤 懶欽	贊主	智英
善允 善堅	道闲	盖瓦化主
天曉	双彦	敬性
印熙	学根	斗熙
		彦信

화엄사 대웅전 삼신불상 조성의 증명을 맡은 승려는 熙彦(希彦)과 文悅이다. 불상을 조성한 장인은 수조각승 청헌을 비롯해 총 18명이 참여했는데 두 불상 『施主秩』의 畫員秩에는 조각승들의 순위가 약간 다르게 표기되어 있다(표 2). 10위까지는 순서가 같지만 11위부터 18위까지는 순위가 달라 노사나불상과 석가불상 조성에 참여한 조각승의 활동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노사나불상과 석가불상 『施主秩』에 기록된 조각승의 순위

존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노사나불상	淸軒	應元	印均	法玄	省根	英蹟	眞澤	善允	天曉	印熙	尙義	尙一	智學	雲密	法密	李浩	懶欽	善堅
석가불상	淸憲	應元	印均	法現	省根	英蹟	元澤	善允	天曉	印希	善見	懶欽	學浩	法密	雲密	智學	尙日	尙儀

두 불상 『施主秩』에는 불상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한 化主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즉 불상 조성 화주는 나목과 회보, 法堂 화주는 덕일과 쌍조, 丹青 화주는 인해와 지영, 蓋瓦 화주는 경성·두희·언신 등이 담당해 총 9명이 참여하였다. 두 불상 『施主秩』에 기록된 화주는 중관 해안이 1636년에 저술한 『華嚴寺事蹟』의 기록과 대부분 일치하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다. 즉 불상 화주는 『施主秩』과 『華嚴寺事蹟』의 내용이 같지만, 법당·단청·개와 화주는 두 기록에 차이가 있다. 『施主秩』에는 법당·단청·개와 화주로 9명이 기록되어 있지만, 『華嚴寺事蹟』에는 불상·법당·변와·주중·화불·단청 대화사로 총 21명이 기록되어 있다(표 3).<sup>24</sup>

표 3. 『施主秩』(1635년)과 『華嚴寺事蹟』(1636년)에 기록된 化主

	불상 화주	법당 화주	단청 화주	단청대화주	개와 화주	화불 화주	주중 화주
『施主秩』 (1635년)	나목, 회보	덕일, 쌍조	인해, 지영	×	경성, 두희, 언신	×	×
『華嚴寺事蹟』 (1636년)	나목, 회보	인해, 덕일, 지영, 사인	사순, 승안, 설한, 묘엄	전판사 계원, 계우, 상경, 지엄, 홍준	진조, 두희, 경오, 언신	인화, 보원	응조, 태현

이 외에도 사찰에서 대중의 죄구 등과 공양간의 모든 일을 감독하여 음식을 마련하는 別座<sup>25</sup>는 경호·사혜·계주·신행 등 4명이었고, 사찰과 시주자 사이를 왕래하며 후원 물품을 구하는 소임인 것으로 추정되는 來往<sup>26</sup>은 학해·삼인·신화·찬규·도한·쌍언·학근·승익·응철·김옥이·응립 등 11명이다.

24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華嚴寺誌』(아세아문화사, 1997), p.70.

25 이종수·허상호, 「17~18세기 불화의 『畫記』 분석과 용어 考察」, 『불교미술』 21(2010), p.145.

26 이종수·허상호, 위의 논문(2010), p.146.

### Ⅲ.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의 「施主秩」 분석

#### 1. 施主 物目과 시주자

화엄사 두 불상의 「施主秩」 앞 부분에는 시주 物目과 대시주자 및 시주자가 기록되어 있다. 시주 물목이 기록된 시주자는 승려와 속인으로 구분된다. 두 불상의 속인 시주자가 차이가 있는 것은 석가불상에서는 單身으로 표기된 반면, 노사나불상에는 부부를 의미하는 兩位 또는 兩主로 표현되었기 때문이다(표 4).

시주 물목 가운데 黃金·烏金·面金·材木·鐵物·苧布는 불상 제작 및 개금과 관련된 것이다. 불상 제작의 비용과 관련된 것으로는 보시·공양·시주·식염 등이 있고, 공양 물목으로는 龍露·龍淚·坐具 등이 있다. 복장물과 관계된 시주 물목으로는 후령통, 裹布, 유리·인삼·진주·용뇌,<sup>27</sup> 五色絲, 腹藏經, 腹藏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채색과 관련된 것으로는 대청·중청·하엽·주홍·황단·진분·어교 등이 있다.

표 4. 석가불상과 노사나불상 「施主秩」의 시주 물목과 시주자

번호	분류	시주물목	석가불상		노사나불상	
			시주자		시주자	
			僧人	俗人	僧人	俗人
1	불상	佛像	2	9	2	10
2	개금	黃金	2	7	2	15
3		金	·	1	·	·
4		面金	·	7	1	12
5		烏金	·	3	2	8
6	눈	開眼	·	1	·	1
7	재료	材木	·	2	·	3
8		苧布	1	2	1	4
9		鐵物	·	6	·	12
10	비용	布施	·	5	·	9
11		供養	·	3	·	8
12		施主	1	1	1	1
13		食鹽	·	1	·	2

27 『造像經』「腹藏入物抄錄」(1575년 용천사 본)에는 오약으로 人心·甘草·桂心·阿梨·附子 등이 있는데, 화엄사 석가불상과 노사나불상의 시주 물목에 있는 인삼과 용뇌는 『조상경』의 명칭과는 다르지만 오약으로 납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번호	분류	시주물목	석가불상		노사나불상	
			시주자		시주자	
			僧人	俗人	僧人	俗人
14	공양물	龍露	·	1	·	·
15		龍淚	·	1	·	2
16		坐具	·	3	·	6
17	복장물	喉鈴筒	·	1	·	2
18		裹布	·	1	·	2
19		腹藏經	·	5	·	12
20		腹藏	1	4	1	5
21		生金	·	1	·	1
22		琉璃	·	1	·	1
23		人蔘	1	·	·	·
24		眞珠	·	2	·	4
25		龍腦	·	1	·	4
26		五色絲	1	1	·	2
27	채색	大靑	1	2	1	4
28		中靑	1	2	1	7
29		荷葉	·	1	·	2
30		朱紅	·	2	·	·
31		黃丹	·	1	·	2
32		眞粉	·	2	·	4
33		魚膠	·	1	·	1
총			11	81	12	146

## 2. 소임자와 시주자

노사나불상 「施主秩」에 기록된 승려는 大德秩 228명, 本寺施主秩 176명, 緣化秩 26명, 畫員秩 18명, 施主者 164명으로 총 612명이다. 석가불상 「施主秩」에 수록된 승려는 총 600명으로 노사나불상과 비교해 12명이 적다.<sup>28</sup> 노사나불상 「施主秩」에는 승려 612명과 속인 818명 등 총 1,430명이 기록되어 있고, 석가불상 「施主秩」에는 승려 600명과 속인 728명 등 총 1,328명이 수록되어 있다(표 5).

28 노사나불상과 석가불상의 「施主秩」에 기록된 참여한 승려 가운데 중복되어 표기된 예가 다수 발견되지만 본 논문에서는 시주질에 기록된 전체 참여자의 수를 비교하였다.

표 5. 노사나불상과 석가불상「施主秩」에 기록된 참여자의 분석

	역할 및 소임		노사나불상		석가불상	
			僧人	俗人	僧人	俗人
1	大德秩		228	·	·	·
	本寺施主秩		176	·	·	·
2	緣化秩	證明	2	·	2	·
3		持殿	1	·	1	·
4		化主	2	·	2	·
5		別座	4	·	4	·
6		來往	10	1	10	1
7		法堂化主	2	·	2	·
8		丹青化主	2	·	2	·
9		蓋瓦化主	3	·	3	·
10	畫員秩	畫員	18	·	18	·
11	施主者	비구	163	·	555	·
		비구니	1	·	1	·
		왕실 인물	·	7	·	7
		상궁	·	17	·	15
		왕실 관련 여성으로 추정된 인물	·	24	·	22
		부부	·	122	·	6
		단신	·	647	·	677
			612	818	600	728
	참여자 수		1,430		1,328	

〈표 5〉에서 보다시피 시주자로 참여한 속인은 왕실 관련 인물과 일반인으로 구분된다. 왕실 인물로는 의창군 이광 부부, 신익성 부부,<sup>29</sup> 소현세자 부부, 경진생 이씨 등 7명이 기록되어 있다. 선조의 아들 의창군과 부마 신익성이 참여했으며, 인조의 아들 소현세자 부부가 동참한 것이 주목된다.<sup>30</sup> 경진생 이씨도 왕실 인물로 추정된다. 왕실과 관련된 또다른 인물로는 상궁을 들 수 있는데 모두 17명이 참여했고, 상궁의 나이는 정묘생(1567년)부터 병진생(1616년)까지 다양하다.

노사나불상과 석가불상「施主秩」 분석을 통해 당시 화엄사에서 수행 중이던 승려수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 즉 화엄사 노사나불상「施主秩」의 本寺施主秩에 기록된 승려는 176명이었고, 大德秩에는 228명이 수록되어 있다. 본사시주질과 대덕질의 승려 가운데 중복된 인물이 137명이니 적어도 200여 명이 넘는 승려가 화엄사에 주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9 신익성의 아내 정숙옹주(1587-1627)는 1627년에 사망하였음에도 노사나불상과 석가불상「施主秩」에는 부부로 표기되어 있다.

30 소현세자는 임자생(1612년)인데 부인 민희빈 강씨와 같은 신해생(1611년)으로 표기되어 있다. 노사나불상「施主秩」에는 “辛亥生 李氏, 辛亥生 姜氏 兩位”로 표기되어 있고, 석가불상「施主秩」에는 “辛亥生 李氏 兩位”로만 기록되어 있다.



### 3. 大功德主 벽암 각성

벽암 각성은 17세기 화엄사의 재건 불사를 주도한 승려로 선조, 광해군, 인조, 효종 등 왕실과도 교류했다. 그는 왜란과 호란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하자 義僧軍으로 활동했고 보은 법주사, 구례 화엄사, 하동 쌍계사, 완주 송광사, 합천 해인사 등을 17세기에 재건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벽암 각성은 사찰을 재건하면서 불상과 불화의 조성 그리고 경전 간행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sup>31</sup>

벽암 각성이 17세기에 재건한 구례 화엄사, 하동 쌍계사, 완주 송광사의 대웅전에는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비로자나불 · 노사나불 · 석가불로 구성된 삼신불상과 석가불 · 약사불 · 아미타불로 구성된 삼세불상이 봉안되어 있다. 구례 화엄사 대웅전 삼신불상(1634년), 하동 쌍계사 대웅전 삼세불상과 4보살상(1639년), 완주 송광사 대웅전 삼세불상(1641년) 등은 벽암 각성의 주도하에 수조각승 청헌이 여러 보조조각승들과 함께 조성했다. 벽암 각성은 화엄사 삼신불상을 조성한 조각승 청헌을 비롯해 현진 · 무염 · 해심 등과도 밀접하게 교류하며 불상 조성을 주도하기도 했다(도 10).<sup>32</sup>

벽암 각성은 1632년부터 화엄사 재건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sup>33</sup> 그의 활동은 1630년부터 시작되었다. 즉 1630년에 화엄사 동서오층석탑을 중수했고, 1634년에는 화엄사 삼신불상을 조성했으며, 1653년에는 화엄사 영산회 괘불탱<sup>34</sup>을 제작했다. 화엄사에는 벽암 각성의 사리를 봉안한 승탑, 그의 행장을 기록한 탑비, 왕실로부터 하사받은 교지 · 가사 · 발우 등이 남아 있고, 화엄사에서 입적했기 때문에 화엄사는 그의 본寺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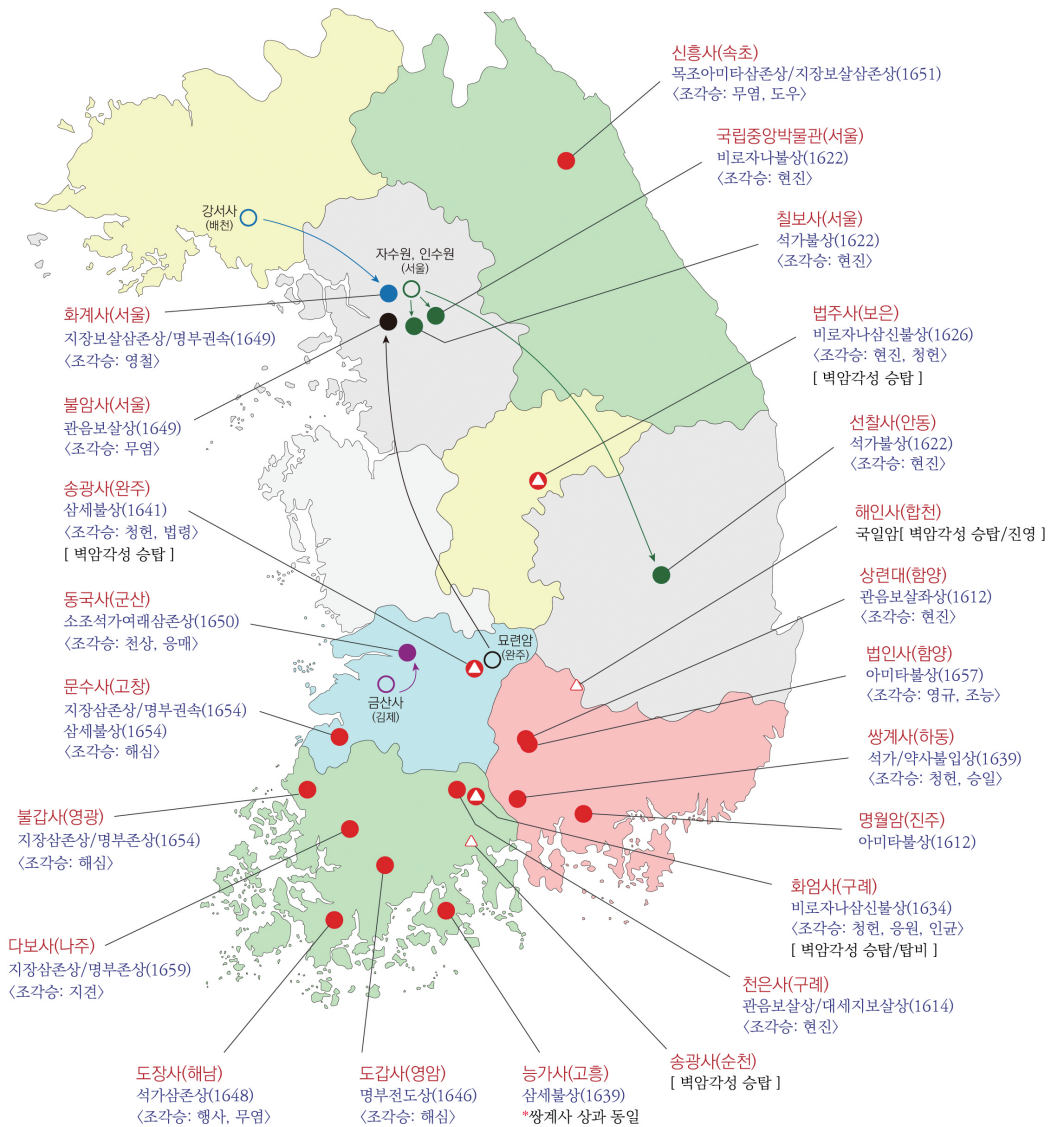
벽암 각성이 화엄사 삼신불상을 조성하는데 맡은 직임은 ‘辦舉事’로 노사나불상의 대좌 목서에 일을 주관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辦舉事 覺性’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석가불상 「施主秩」에는 ‘大功德主 賜報恩闍教圓照國一都大禪師 八道都捻撰 覺性’으로, 노사나불상 「施主秩」에는 ‘大德秩’ 첫머리에 기록되어 있다.

31 벽암 각성과 불교미술문화재 조성에 관해 고찰한 학술대회는 2018년 (사)한국미술사연구소에서 개최되었으며, 이때 발표된 논문의 대부분은 『강좌미술사』 52(2019) 특집호에 실려있다.

32 유근자, 『조선시대 불상과 복장기록 연구』(불광출판사, 2017), pp.141-147; 문명대, 「벽암 각성의 조형 활동과 불상 조성」, 『강좌미술사』 52(2019), pp.15-33.

33 白谷 處能, 「賜報恩闍教圓照國一都大禪師行狀」, 『大覺登階集』 卷 2.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https://kabc.dongguk.e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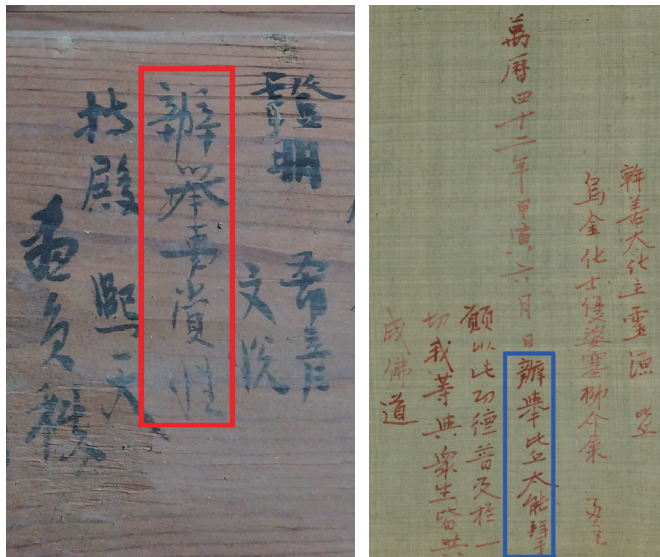
34 김정희, 「碧巖 覺性和 華嚴寺 靈山會掛佛圖」, 『강좌미술사』 52(2019), pp.99-141.



도 10. 벽암 각성이 참여한 불상 조성과 조각승과의 관계도, 필자 작성

조선시대 불상조성기에 등장하는 大功德主는 ‘불상 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권선을 주관한 이’라는 의미와 함께 ‘시주를 많이 한 자’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 화엄사 노사나불상 대좌의 ‘辦舉事’는 천은사 관음·대세지보살상의 발원문에는 ‘辦舉’로(도 11),<sup>35</sup> 부여 무량사 아미타삼존상(1633년) 조성기에는 ‘辦事’로<sup>36</sup> 기록되어 있다. 천은사(1614년), 무량사(1633년), 화엄사(1634년)의 예에서 보듯이 불사를 주관한 이라는 의미의 ‘辦舉’는 17세기에 한시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화엄사는 주불로 삼신불상을 봉안하고 전각명을 대적광전 또는 대광명전이라고 하지 않고 대웅전이라고 한 것은 명확하지 않다. 단지 1394년에 창건된 영변 석왕사 보광전을 벽암 각성이 1644년에 중수하고 대웅전으로 개칭한<sup>37</sup> 사실에서 그가 대웅전을 선호했다는 것을 짐작할 뿐이다. 화엄사 삼신불상의 조성은 화엄사 〈벽암각성 탑비〉(1663년)의 내용처럼 ‘降魔軍의 수장’인 벽암 각성이 정유 재란으로 초토화된 화엄사를 재건하면서,<sup>38</sup> 의승군으로 함께 활동했던 많은 제자 및 동료들과 함께 조성한 것이다. 화엄사 대웅전에 삼신불상을 봉안한 것은 화엄사가 화엄 10찰<sup>39</sup>이었기 때문이다.



도 11. 화엄사 대웅전 노사나불상 대좌 묵서 기록(향좌, 1634년)과 천은사 관음·대세지보살상 조성발원문(1614년), 필자 촬영

35 유근자, 앞의 책(2017), p.4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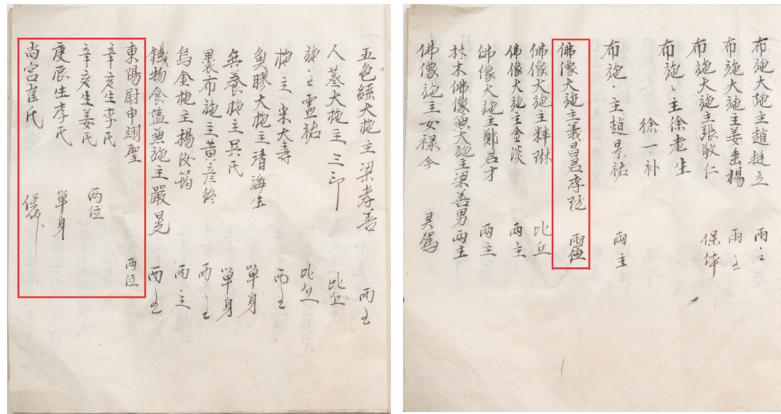
36 유근자, 위의 책(2017), p.415.

37 『櫟山集』권하, 『釋王寺大雄殿重修記』, “夫此殿之創 在於 洪武二十七年甲戌 實聖祖創業之第三年 而號曰普光殿 崇禎紀元之十七年甲申 碧巖大德重建 改號曰大雄殿”(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https://kabc.dongguk.edu/>).

38 김용태, 「조선후기 華嚴寺의 역사와 浮休系 전통」, 『지방사와 지방문화』 12(2009), pp.385-387.

39 화엄 10찰은 『삼국유사』와 최치원이 지은 『唐大薦福寺故寺主翻經大德法藏和尚傳』(904년)에 전한다. 『삼국유사』에는 부석사·비마라사·해인사·옥천사·범어사·화엄사 등 여섯 사찰이 기록되었고, 『法藏和尚傳』에는 미리사·하엄사·부석사·해인사·보광사·보원사·갑사·화산사·범어사·옥천사·국신사·청담사 등 12개 사찰이 수록되었다. 화엄사는 두 기록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화엄 10찰의 성립 시기는 해인사가 창건된 802년 이후부터 904년 사이로 9세기 말 경에는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정병삼, 『8세기 화엄교학과 화엄사찰』, 『한국사상과 문화』 64(2012), p.144).

#### 4. 왕실 시주자



도 12. 화엄사 노사나불상 「施主秩」 3면과 9면에 기록된 왕실 인물, 1635년, (사)사찰문화재보존연구소 제공

벽암 각성과 의창군 이광, 신익성, 소현 세자 등은 화엄사 삼신불상이 조성된 1634년부터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도 12). 화엄사 석가불상 「施主秩」 첫머리에 의창군 이광이 불상대시주자로 기록된 것은 그가 화엄사 삼신불상 조성과 깊게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의창군 이광과 화엄사와의 관련은 대웅전과 일주문의 현판 글씨를 통해 이미 알려져 있다.<sup>40</sup> 즉 의창군은 1636년 화엄사에 ‘大雄殿’ 현판과 일주문의 ‘智異山 華嚴寺’ 현판 글씨를 직접 쓴 인물이다. 또한 화엄사에는 1630년에 의창군이 선조의 어필을 모아 간행하고 발문을 쓴 『宣廟御筆』<sup>41</sup>이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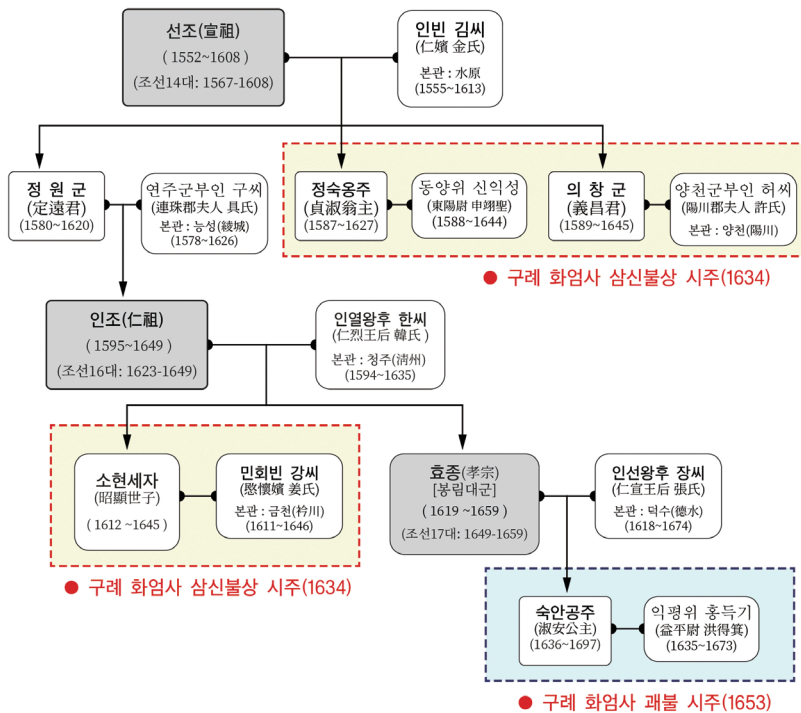
화엄사 두 불상의 「施主秩」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의창군 이광 및 신익성 부부, 소현세자 부부를 비롯한 많은 왕실 인물들이 시주자로 참여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점이다(도 13). 이후에도 화엄사 영산회 괘불탱(1653년) 조성에는 효종의 차녀 숙안공주(1636-1697)와 남편 홍득기(1635-1673)가 시주자로 동참했는데 이 불사를 주도한 인물이 바로 벽암 각성이었다.<sup>42</sup> 벽암 각성의 문도인 계파 성능이 주도한 각황전 건축(1699-1702년)과 3불상4보살상(1703년) 조성에도 숙종을 비롯한 왕실 인물들이 참여해<sup>43</sup> 화엄사는 벽암 각성 이후 18세기까지 왕실의 후원이 지속되었다.

40 이강근, 「17세기 碧巖 覺性의 海印寺·華嚴寺 再建에 관한 연구」, 『강좌미술사』 52(2019), p.86.

41 이완우, 「조선 후기 列聖御筆의 刊行과 廣布」, 『장서각』 30(2013), pp.154-156.

42 김정희, 앞의 논문(2019), pp.116-120.

43 오진희, 「조각상 색난파와 화엄사 각황전 칠존불상」, 『강좌미술사』 26(2006), pp.114-119.



도 13. 구례 화엄사 삼신불상과 영산회 괘불탱 조성에 참여한 왕실 시주자, 필자 작성

벽암 각성(도 14)과 소현세자의 관계는 1634년 화엄사 삼신불상 조성에서부터 시작되어 1641년 완주 송광사 삼세불상의 조성으로 이어졌다. 완주 송광사 삼세불상 조성기에는 청에 불모로 잡혀간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의 조속한 귀국을 기원하고 있으며,<sup>44</sup> 勝明이 잠시 귀국한 소현세자가 청에서 가져온 금을 시주받은 사실은 『佛像化主行蹟』에 기록되어<sup>45</sup> 벽암 각성과 소현세자의 인연이 완주 송광사 삼세불상의 조성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신익성(도 15)과 벽암 각성의 관계는 1642년(인조 20) 8월에 그가 白雲樓에서 쓴 『書圖中決疑後』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벽암 각성이 저술한 『禪源圖中決疑』는 1648년(인조 26)에 해인사에서 간행되었는데, 신익성 쓴 「서도중결의후」가 이 책 속에 삽입되어 있다.<sup>46</sup> 화엄사 삼신불상 조성에 신익성이 참여한 데에는 이처럼 벽암 각성과의 관계가 크게 작용했다.

44 문명대, 「松廣寺 大雄殿 塑造釋迦三世佛像」, 『강좌미술사』 13(1999), pp.8-10.

45 유근자, 「17세기의 완주 송광사 불사와 벽암 각성(碧巖覺性)」, 『남도문화연구』 36(2019), pp.141-143.

46 서수정, 「새로 발견한 벽암 각성의 『선원도중결의(禪源圖中決疑)』 간행 배경과 그 내용」, 『불교학연구』 55(2018), pp.193-194.





도 14. <벽암 각성 진영>, 조선후기, 국일암 소장,  
불교중앙박물관 제공



도 15. <신익성 초상>, 17세기, 52.5×29.6cm,  
종이에 채색, 개인 소장, 불교중앙박물관  
제공

#### IV.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의 제작 시기

화엄사 삼신불상의 제작 연도는 1634년으로 두 불상의 「施主秩」과 노사나불상의 대좌 묵서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 노사나불상 대좌에는 “공경히 지리산 화엄사 법당 상주불로 비로불 · 사나불 · 석가문불을 조성했으니, 大明 崇禎 7년 갑술년(1634) 3월에 공사를 시작해 동년 8월에 마치고 대웅전에 봉안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sup>47</sup>(도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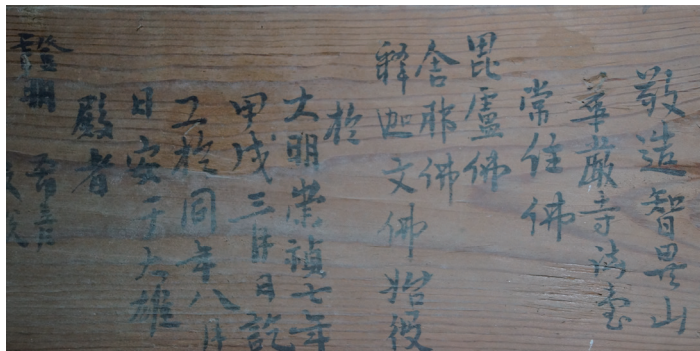
노사나불상의 대좌 기록과 달리 노사나불상 「施主秩」에는 “공경히 지리산 화엄사 법당 상주불인 비로불 · 노사나불 · 석가문불을 조성했으니, 승정 7년 갑술년(1634) 3월에 공사를 시작해, 다음 해 가을에 공사를 마치고 대웅전에 안치했다(도 17).”<sup>48</sup>고 기록되어 있고, 석가불상 「施主秩」에는 “승정 7년 갑술년(1634) 3월에 공사를 시작해 다음 해인 을해년(1635년) 가을에 공사를 마치고, 상주 삼보인 비로불 · 노사나불 · 석가문불을 지리산 화엄사 대웅전에 봉안했다.”<sup>49</sup>고 기록되어 있다(도 18). 앞에

47 “敬造智異山 華嚴寺法堂 常住佛 毘盧佛 舍那佛 釋迦文佛始役 於 大明崇禎七年 甲戌三月日訖 工於同年八月 日安于大雄 殿者”(교감 및 교열 고경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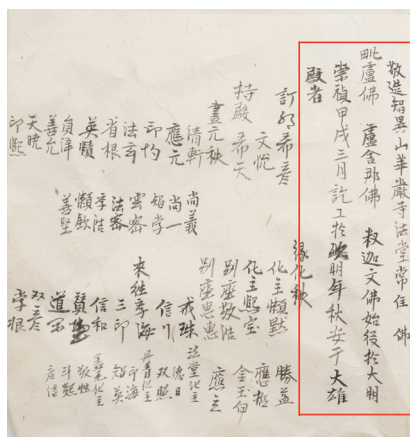
48 “敬造智異山華嚴寺法堂堂常住 佛 毗盧佛 盧舍那佛 釋迦文佛始役於大明 崇禎甲戌三月訖工於次明年秋安于大雄 殿者”(교감 및 교열 고경스님).

49 “崇禎七年甲戌三月日始役於次明年乙亥秋訖工於常住三宝 毗盧佛 盧舍那佛 釋迦文佛智異山華嚴寺大雄殿 安于者”(교감 및 교열 고경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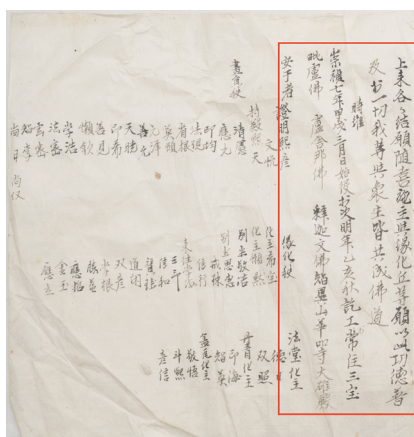
서 언급한 대좌의 목서 기록과 두 불상의 「施主秩」에는 화엄사 삼신불상의 제작 시기가 1634년 3월로 동일하게 표기되었지만, 대웅전에 봉안한 시기는 1634년과 1635년으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도 16. 화엄사 노사나불상 대좌 목서 기록, 1634년, 필자 촬영



도 17. 화엄사 노사나불상 「施主秩」, 37면, 1635년



도 18. 화엄사 석가불상 「施主秩」, 21면, 1635년

화엄사 대웅전은 1630년에서 1636년에 걸쳐 벽암 각성의 주도로 그의 문도들에 의해 완성되었고, 이때 불상·불화·단청 등 모든 불전 내부도 장엄되었으며, 범종도 조성되었다.<sup>50</sup> 두 불상 「施主秩」의 緣化秩에는 화엄사 삼신불상의 화주로 懶默과 希宝가 기록되어 있고, 불상 화주와 별도로 法堂·丹青·蓋瓦 화주가 기록되어 있다. 법당·단청·개와는 불상을 봉안한 대웅전에 관한 것이므로 1634년에 불상을 조성해 완공된 대웅전 안에서 점안식을 거행한 해가 바로 1635년이었음을 의미한다. 조선시대 불상을 조성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대략 3개월에서 6개월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노사나 불상의 대좌 기록처럼 1634년 3월에 조성하기 시작해 8월에 불상을 완성해 대웅전에 봉안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0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앞의 책(1997), pp.69-71; 이강근, 앞의 논문(1997), p.100.

화엄사 삼신불상 가운데 노사나불상의 대좌 기록과 비교할 수 있는 것으로는 고창 선운사 대웅전 비로자나삼불상의 대좌 기록을 들 수 있다. 선운사 비로자나삼불상의 불상 대좌에는 1633년 2월에 불상을 조성하기 시작해 완성한 후 1634년 3월에 도금을 마치고 4월 22일에 법당에 봉안한다<sup>51)</sup>는 내용이 있어 1633년에 조성한 것으로 해석된다.<sup>52)</sup> 선운사 비로자나삼불상과 마찬가지로 화엄사 삼신불상은 1634년 3월에 불상을 조성하기 시작해 8월에 완성했고, 1635년 가을에 대웅전에 봉안한 것이다.

## V. 맺음말

이상으로 화엄사 노사나불상과 석가불상의 조성기인 「施主秩」의 구성과 내용을 살펴보았고, 「施主秩」의 분석은 시주물목과 시주자, 소임자와 시주자, 대공덕주 벽암 각성의 역할, 왕실 인물의 시주자 등을 중심으로 고찰했다. 또한 화엄사 삼신불상의 제작 시기는 노사나불상의 대좌 묵서 자료 및 두 불상의 「施主秩」을 토대로 삼신불상은 1634년에 조성되었고, 「施主秩」은 1635년에 작성되어 복장에 납입된 후 점안식을 거행한 것으로 해석했다.

화엄사 두 불상의 「施主秩」은 17세기에 조성된 불상에 관한 기존 조성기의 일반적인 낱장 또는 두루마리 형식과 다르게, 線裝 방식으로 假綴된 책자 형식으로 되어 있다. 노사나불상의 「施主秩」은 1책 19장 38면으로, 석가불상의 「施主秩」은 1책 11장 22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施主秩」의 내용은 불상 조성의 목적, 제작 시기, 奉安 연도 및 奉安處, 尊名, 所任者, 彫刻僧, 施主物目, 施主者 등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당시 화엄사에 주석하고 있던 승려들까지 수록하고 있는 점에서 「施主秩」은 약 400여 년 전 화엄사의 중창 불사 당시의 상황을 오늘날에 소상하게 알려주는 타임캡슐(time capsule) 같은 것이다.

두 불상의 「施主秩」 및 노사나불상의 대좌 기록에 의하면, 1634년(인조 12) 3월에 화엄사 삼신불상을 조성하기 시작해 8월에 완성한 후, 1635년(인조 13) 가을에 대웅전에 봉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화엄사 삼신불상의 제작 시기를 1634년으로 특정할 수 있게 된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은 中觀 海眼이 저술한 『華嚴寺事蹟』(1636년)에 의존해 삼신불상의 조성 시기를 1636년으로 추정해 왔는데, 이제는 화엄사 삼신불상의 제작 시기를 1634년으로 특정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화엄사 두 불상의 「施主秩」은 碧巖 覺性の 역할을 잘 알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벽암 각성은 1630년에 화엄사 동오층석탑을 중수할 때는 ‘大功德主’였고, 1634년 삼신불상을 조성할 때도 ‘辦舉

51 “崇禎六年癸酉”二月日始役爲定毘盧佛樂師如來阿彌陀佛木三尊七月日白像初點眼爲止明春甲戌之季佛像三尊烏黃金之永畢其此四月廿二日法堂安移佛像”(이기선, 「高敞 禪雲寺에서 새로 발견된 造像 資料」, 『역사와 실학』 14(2000), pp.362-363).

52 문명대, 「선운사 대웅보전 무염(無染) 작 비로자나삼불상(毘盧遮那三佛像)」, 『강좌미술사』 30(2008), p.356.

事’ 또는 ‘大功德主’였으며, 1653년 영산회 괘불탱을 조성할 때 역시 주도적인 역할을 맡는 등 17세기 화엄사 중창 불사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화엄사 두 불상의 「施主秩」은 벽암 각성과 왕실과의 관계를 밝힐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두 불상의 「施主秩」은 불상의 조성과 관련해 왕실 인물인 선조의 아들 義昌君 李珣과 사위 申翊聖, 인조의 아들 昭顯世子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최초의 자료이기 때문이다. 화엄사 두 불상의 「施主秩」은 삼신불상의 조성 연도, 벽암 각성과 왕실의 관계 및 그의 역할 등, 17세기 화엄사 삼신 불상의 조성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담고 있어 미술사뿐만 아니라 향후 화엄사의 역사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적 가치가 있다.

원고투고일 2021. 9. 20. | 심사개시일 2021. 10. 5. | 게재 확정일 2021. 11. 30. |

## 참고문헌

### 【1차 문헌】

『大覺登階集』

『東溪集』

『櫟山集』

『日省錄』

『造像經』

### 【단행본, 보고서, 도록】

구례군지편찬위원회, 『구례군지』, 2005.

불교중앙박물관, 『華藏 지리산 대화엄사』, 서울: 2021.

문화재청·구례군, 『구례 화엄사 대웅전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보고서』, (사)사찰문화재보존연구소, 2015.

송은석, 『조선후기 불교조각사』, 서울: 사회평론, 2012.

양은용·김덕수 편, 『壬辰倭亂과 佛教義僧軍』, 서울: 경서원, 1992.

유근자, 『조선시대 불상의 복장기록 연구』, 서울: 불광출판사, 2017.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華嚴寺誌』,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7.

### 【논문】

김광희, 「갑사 대웅전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사보살입상 연구」, 『미술사학연구』 300, 2018.

김성순, 「갑사(甲寺) 사적(史蹟)을 통해 본 의병장 영규(靈圭)에 대한 두 갈래 시선」, 『불교문예연구』 14, 2019.

김승호, 「壬亂時 僧將의 설화전승 양상 - 靈圭大師를 중심으로 -」, 『동악어문학』 36, 2000.

김영봉, 「求禮 石柱關七義士에 대한 追慕詩文 考察」, 『한국시가문화연구』 27, 2011.

노기욱, 「이순신의 수군 정비와 명량해전」, 『지방사와 지방문화』 16, 2013.

김용태, 「조선후기 華嚴寺의 역사와 浮休系 전통」, 『지방사와 지방문화』 12, 2009.

김정희, 「碧巖 覺性과 華嚴寺 靈山會掛佛圖」, 『강좌미술사』 52, 2019.

문명대, 「松廣寺 大雄殿 塑造釋迦三世佛像」, 『강좌미술사』 13, 1999.

\_\_\_\_\_, 「선운사 대웅보전 무염(無染) 작 비로자나삼불상(毘盧遮那三佛像)」, 『강좌미술사』 30, 2008.

\_\_\_\_\_, 「벽암 각성의 조형 활동과 불상 조성」, 『강좌미술사』 52, 2019.

서수정, 「새로 발견한 벽암 각성의 『선원도중결의(禪源圖中決疑)』 간행 배경과 그 내용」, 『불교학연구』 55, 2018.

손영문, 「조각승 印均派 불상조각의 연구」, 『강좌미술사』 26, 2006.

\_\_\_\_\_, 「朝鮮 後期 木造阿彌陀如來三尊 佛龕과 阿彌陀如來七尊 佛龕 考察」, 『불교미술』 30, 2019.

송은석, 「17세기 전반 曹溪山 松廣寺와 彫刻僧: 覺敏, 應元, 印均」, 『보조사상』 29, 2008.

\_\_\_\_\_, 「조선 후기 應元·印均派의 활동: 應元, 印均, 三忍」, 『한국문화』 52, 2010.

\_\_\_\_\_, 「미국 미술관, 박물관 소장 조선시대 불상 연구」, 『미술사와 시각문화』 12, 2013.

심주완, 「동아시아 삼불상 도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 양은용, 「丁酉再亂의 석주관전투와 華嚴寺義僧軍」, 『가산학보』 4, 1995.
- \_\_\_\_\_, 「임진왜란 이후 佛教義僧軍의 동향-全州松廣寺의 開創碑 및 新出 腹藏記를 중심으로」,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4, 2003.
- \_\_\_\_\_, 「뇌묵 처영(雷默處英)의 의승 활동과 금산사(金山寺)」, 『한국종교』 47, 2020.
- 오진희, 「조각승 색난파와 화엄사 각황전 칠존불상」, 『강좌미술사』 26, 2006.
- \_\_\_\_\_, 「화엄사 대웅전 목 삼신불상의 연구」, 『강좌미술사』 28, 2007.
- 유근자, 「17세기의 원주 송광사 불사와 벽암 각성(碧巖覺性)」, 『남도문화연구』 36, 2019.
- \_\_\_\_\_, 「화엄사 대웅전 비로자나삼신불좌상의 시주질 분석」, 『華藏 지리산 대화엄사』, 불교중앙박물관, 2021.
- 이강근, 「華嚴寺 佛殿의 再建과 莊嚴에 관한 研究」, 『불교미술』 14, 1997.
- \_\_\_\_\_, 「17세기 碧巖 覺性의 海印寺 · 華嚴寺 再建에 대한 연구」, 『강좌미술사』 52, 2019.
- 이기선, 「高敞 禪雲寺에서 새로 발견된 造像 資料」, 『역사와 실학』 14, 2000.
- 이완우, 「조선 후기 列聖御筆의 刊行과 廣布」, 『장서각』 30, 2013.
- 이종수 · 허상호, 「17~18세기 불화의 『畫記』 분석과 용어 考察」, 『불교미술』 21, 2010.
- 정병삼, 「8세기 화엄교학과 화엄사찰」, 『韓國思想과 文化』 54, 2012.
- 최선일, 「파주 보광사 대웅보전 목조보살입상과 彫刻僧 英蹟」, 『미술사학』 24, 2010.
- 최인선, 「珍島 雙溪寺 大雄殿 三尊佛像과 彫刻僧 熙藏」, 『문화사학』 44, 2015.

# Analysis of the Shijujils(施主秩), the records on the creation of Buddha statues, of wooden seated Vairocana Buddha Triad of Hwaeomsa Temple

Yoo, Geun-Ja \*

This paper mainly analyzes the records titled ‘Shijujil(施主秩)’ from the Bokjangs of each of the Rocana and Shakyamuni statues enshrined as wooden seated Vairocana Buddha Triad composed of Vairocana(center), Rocana(right), and Shakyamuni(left) at the Daeungjeon Hall of Hwaeomsa Temple in Gurye.

The Shijujil from the Shakyamuni statue was recovered through Bokjang investigation in September 2015 and has been kept in the museum of Hwaeomsa as an undisclosed relic. After the discovery of the Shijujil from the Rocana statue through an Bokjang investigation in July 2020, both of the Shijujils were only officially released through the special exhibition 'Grand Hwaeomsa Temple in Jirisan Mountain' in September 2021.

Existing documents recording on the creation of Buddha statues in the 17th century are in the form of sheets or rolls. However, the Shijujils take the form of simple stitched booklets. The Shijujil from Rocana consists of 19 chapters and 38 pages in one book, and the Shijujil from Shakyamuni consists of 11 chapters and 22 pages in one book.

The contents of the Shijujils consist of the purpose of the Buddha statue creation, the creation date, the year and place of enshrining, the names of the statues, the people in charge and their roles, the sculptors, the list of items donated, and the list of the contributors. In addition, the list of monks who were staying at Hwaeomsa Temple at that time are also recorded, so the Shijujil is like a time capsule that tells the situation of Hwaeomsa Temple about 400 years ago.

According to the records of the Shijujils and the Writing on the wooden pedestal of Rocana, the Vairocana Triad began to be in March 1634(12th year of King Injo) and was completed in August of that year, and was enshrined in the Daeungjeon Hall in the fall of the following year. It is very important to confirm that the Vairocana Buddha Triad of Hwaeomsa was created in 1634. Since studies on the reconstruction of Hwaeomsa Temple in the 17th century and the roles of Byeokam Gakseong have been mainly based on 『湖南道求禮縣智異山大華嚴寺事蹟』 written by monk Haeon in 1636, it has been estimated that the wooden seated Vairocana Buddha Triad was created in 1636. However, it is now known that the Virocana Buddha Triad was created in 1634.

---

\* Dongguk University Adjunct Professor

The Shijujils are also a good source of information about Byeokam Gakseong who played a pivotal roles in the reconstruction projects of Hwaeomsa Temple in the 17th century. He played leading roles in rebuilding the East Five-story Stone Pagoda(1630), in creating the wooden seated Vairocana Buddha Triad(1634), and in producing the Yeongsanhoe Gwaebul(1653, Hanging Scroll Painting depicting the Shakyamuni preaching).

It is also very important that the Shijujils are records that can reveal the relationship between Byeokam Gakseong and royal family of Joseon Dynasty in the 17th century. The Shijujils from Rocana and Shakyamuni are the first documents ever discovered in which the names of royal family members, such as Uichanggun(Gwang Lee, son of King Seonjo), Ikseong Shin(son-in-law of King Seonjo), and Crown Prince Sohyeon(son of King Injo) are recorded in detail in relation to the production of Buddha statues.

The Shijujils from Rocana and Shakyamuni contain specific information about the production of the wooden seated Vairocana Buddha Triad in the 17th century, such as the year of production of the Buddha statues, the role of Byeokam Gakseong,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Byeokam Gakseong and the royal family, so it is of great value not only for art history but also for historical studies of Hwaeomsa Temple.

Keywords: Hwaeomsa, wooden seated Vairocana Buddha Triad, Rocana, Shijujil, Byeokam Gakseong, Uichanggun, Ikseong Shin, Crown Prince Sohyeon

